



취역식 앞둔 안중근함 최신에 잠수함인 안중근함이 취역식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안중근함은 1번 손원일함, 2번 정지함에 이은 3번째 214급 잠수함으로, 대함전, 대공전, 대잠전, 적 기지봉쇄 및 공격기뢰부설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고 수중에서 3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길이 65.3m, 폭 6.3m, 최고 속력 20노트(37km)의 안중근함은 승조원 40여명을 태우고 미국 하와이까지 연로 재충전 없이 왕복 항해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R&D 특구 어떻게 조성되나

5,123만㎡ 10개 구획 특화 개발

이달중 지정 신청 내년 상반기중 결정될 듯

광주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대상지를 세종시로 나열할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의 기초과학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광주 R&D(연구·개발)특구 지정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 광주 R&D특구 지정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유치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하지만 특구지정은 별개 사안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종합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종합해 지식경제부에 광주 R&D특구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광주 R&D특구 지정 결정은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첨단 1지구에 녹색융합기술연구원을 설립하고 광산구 두정 지구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구로 조성하는 내용의 R&D특구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특구 개발 계획안=R&D특구는 광산업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미래 핵심 융·복합 기술을 개발,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전초 기지로 육성된다.

용역안에 따르면 R&D특구 범위는 5천123만㎡로, 첨단1지구(965㎡), 첨단2지구(205㎡), 하남지구(681㎡), 두정지구(358㎡), 진곡지구(191㎡), 산정지구(397㎡), 등인 지구(303㎡), 소촌지구(281㎡), 평동지구(712㎡), 장성지구(1천30㎡) 등 10개 구획으로 나뉘어 특화 개발된다.

첨단 1.2지구에는 R&D특구 육성·

개발을 담당할 지원본부를 비롯해 미래 녹색산업을 선도할 녹색융합기술 연구원이 들어오고 정부 출연기관 등 연구기관이 입주한다.

하남산단을 축으로 한 하남지구는 고부가가치 제품 제조업체들이 들어선다. 두정 지구는 광주시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 친환경(철단)부품소재(광기술·친환경 자동차) 등 2개 분야 4개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진곡지구는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육성 클러스터'로 조성되고 장성진원면 지역을 포함한 장성지구에는 외국인 주거용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밖에 산정지구는 연구·교육시설 중심, 평동지구는 고부가가치 제조업 단지가 조성된다.

특구 지정 향후 일정=광주시는 이같은 용역결과와 광주 연구개발(R&D) 특구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바탕으로 R&D특구 지정신청서를 작성, 이달 중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R&D특구 신규지정을 포함한 '국가 전반에 관한 연구개발 특구 혁신방안'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광주시의 R&D특구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 따르면 이 연구용역에서 광주시의 신규지정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내년 1~3월께 지정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R&D특구가 지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2일 영산강 살리기 희망선포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R&D특구' 지정 및 육성과 '클린디젤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안과 관련해 "박광태 광주시장으로부터 평소 많은 얘기를 들어 알고 있다"며 "이 사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도 추진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시는 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경제 효과만 1조4천억원에 이르고 1만6천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특구 육성 계획이 완료되는 4년 뒤에는 지난 2005년 1천147개 인 입주 기업이 2천235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상상력 풍부한 예술적인 전시행사 재미있고 유익한 박람회 만들겠다”

강동석 여수엑스포 조직위원장

“박람회는 재미있어야 합니다.” 강동석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여수신항에서 열린 기공식 이후 인근 박람회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람회를 재미있고, 유익하며, 상상력이 풍부한 예술적인 전시행사로 꾸러나갈 것”은 구상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박람회시설 사후활용은 큰 의미가 없다”며 “박람회가 성공하면 박람회 부지에 대한 투자자가 밀려들 것”이라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다음은 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람회에 대한 개인적인 구상이 있다면.

▲박람회는 재미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비와 숙박비, 음식비를 들여가며 여수까지 올 이유가 없다. 또 박람회는 유익해야 하며, 창의적이고 풍부한 상상력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와 함께 예술적인 박람회가 되어야 한다. 여수시의 뛰어난 환경을 활용하면 관람객에 감동을 주는 박람회가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는지.

▲현재 세계 톱 클래스의 아티스트 초청 아이디어를 구하고 있다. 우선은 여수 앞바다를 이용한 현란하고 감동 깊은 쇼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으며, 예술가들과 다양한 방법을 상의 중이다. 이 쇼는 박람회가 끝나도 상설적으로 공연할 예정이며 현란한 무대와 조명,



IT기술, 한국의 전통예술 등을 결합하면 여수시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의 명품 관광지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박람회 시설 사후활용 계획은.

▲사후활용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중국 상하이 박람회의 경우 대규모 건물이 100동이 넘지만 모두 6개월 후 철거한다. 2천500억 원이 들어가는 사우디아라비아 국가관이나 400억 원이 드는 한국관도 모두 철거된다. 전시용 건물은 쓸모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람회장은 그 같은 전시시설보다는 토지효율을 높일 수 있는 더 나은 시설이 들어야 한다. 박람회가 성공하면 그 박람회장에 투자하기 위한 기업과 민간인들이 몰려들 것이다.

-현재 숙박시설이 충분치 않은

데.

▲호텔과 같은 고급숙박시설이 문제다. 일반적인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현 시점에서는 투자가 없어 호텔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다. 조직위나 중앙정부가 나서 호텔을 지을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선적으로는 고급 숙박시설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남해 힐트리지트나 부산의 관광호텔을 이용할 방침이다. 일반 숙소로는 현재 지어지고 있는 민간분야 아파트들을 박람회 기간 동안 숙박시설로 쓰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의 경우는 여수시내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크루즈선을 임대하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사실상 포기 상태다. 1년 단위 이하로는 크루즈선을 빌릴 수 없는 데다, 빌리더라도 임대료가 비싸 숙박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임시로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에 사용하는 배를 빌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람회기본계획 보완작업은 어떻게 되어나.

▲내년 초에는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내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독립기업관 1개만 짓기로 했던 것을 1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박람회가 상업적으로 흐르는 것도 문제지만, 행사가 재미있게 치러지려면 민간의 투자와 아이디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미 포스코와 LG, GS 등 대기업들이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

무안 한중산단 주총 15일로 연기

투자사 출자 포기 따른 지분율 변동 합의 못해

무안 기업도시 한·중국제산단지 개발사의 주주총회가 15일로 연기됐다.

무안군은 애초 1일 중국에서 열기로 했던 주총 일정을 늦춰 15일 서울에서 열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총 개최 2주전에 일정을 통보한다는 규정에 따라 15일이 주총날짜로 최종결정돼 오늘 출자사들에게 통보됐다”고 말했다.

주총 연기는 국내 투자사들의 한중산단 출자 포기에 따른 지분율 변동 등에 대한 출자사 간 협의가 마무리되

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장관회의에서는 중국 측이 우리 측의 투자확대 요구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중국 측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도 주총 연기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중국 측이 투자 확대나 자본금 감자 등에 대해 입장 정리가 안돼 연기하게 됐다”며 주총 이전에 투자확대나 감자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Duan' (두안) featuring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like 98,000, 359,000, 699,000, 729,000, 499,000, and 490,000. Includes contact info for 'Duan' and 'Duan Education Group'.